

혼합기 끼임사고 끊이지 않아...

※ 혼합기: 회전하는 용기를 사용하거나 고정용기 내에서 혼합날개를 회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물질을 혼합시키는 설비



사고는 일상에서 시작된다.

충남 소재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에 10년째 근무하는 A씨(40세, 남)는 비료제조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 6월 어느 날 A씨는 점심을 먹던 중에 동료작업자 C씨로부터 제품 혼합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오후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동료들이 점심을 먹는 시간을 이용해 **혼자서** 혼합기 덮개를 열고 **내부에 들어가** 이상여부를 확인했다.



※ 유기질비료 제조과정

원료들을 호퍼에서 공급받아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혼합기에 투입한다. 혼합기에서 일정시간 혼합을 거친 후 선별기로 보내져 금속이물질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의 포장단위로 포장할 수 있도록 포장용 호퍼에 저장한다.



재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그런데 A씨가 혼합기 내부로 들어간 직후 문제가 발생했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동료들이 오후 작업을 시작했고 작업자 B씨는 늘 하던대로 혼합기 작동 스위치를 눌렀다. A씨는 혼합기 회전날에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혼합기를 작동시킨 B씨는 혼합기 내부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B씨는 지금도 **동료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늘 하던 일, 결과는 천지차이...

한편 A씨와 같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무려 7건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 A씨는 설비 동작을 멈췄으니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했다. 비슷한 작업을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평소와 **너무나 달랐다**. 점심을 먹고 작업장에 들어온 동료 B씨는 **혼합기 내부에 누군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언제나처럼 오후 작업을 위해 스위치를 눌렀을 뿐인데...



‘왜’라는 이유를, ‘어떻게’라는 방법을!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같은 기계를 조작하는 근로자들은 한번쯤 위와 같은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내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왜’라고 묻지 않으면, ‘어떻게’라고 찾지 않으면 똑같은 위험은 내 것이 되고 사고는 나의 일로 되풀이 될 수 있다.

